내지-최종(도입부)_레이아웃 2 2022-01-03 오후 2:33 페이지 1

改訂增補版

水山里誌



내지-최종(도입부)_레이아웃 2 2022-01-03 오후 2:33 페이지 2

발간사



수산1리 마을회장
김 문 식

오랜 인고의 결실로 수산리 마을지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마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없이 벅차고 기쁜 마음, 이 지면을 빌어 우선 나누고자 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기획 단계부터 자료수집과 편집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편집위원님들, 애지중지 소장하고 있던 귀한 사진을 흔쾌히 제공해주시고 녹취와 설명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마을 주민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통합 마을지는 시간의 오랜 풍화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마을의 인문, 지리, 생태, 풍속, 역사 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동체 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생멸의 세월 속에 정든 얼굴들은 사라져가고, 옛 자취는 스러졌어도 오늘까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며 가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을 주민들 내면에 잠재된 고유한 유전인자가 누대를 거쳐 전승돼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존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결속감, 내 몫의 일과 삶을 묵묵히 일구는 뚝심과 부지런함, 하늬바람 같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기나긴 시간 축적돼 내면에 새겨진 우리 마을만의 공동체 정신이자 수산인의 DN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류는 급변하여 토착민의 유출과 주민 노령화, 귀향에 따른 부적응,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 무분별한 개발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의반 타의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해묵은 반목과 질시로 분열할 것인가, 신뢰와 화합으로 후세에 부끄럼 없는 선대가 될 것인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통합 마을지의 발간이 마을에 드리워진 그늘과 그림자를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우리 이웃들을 더 단단히 연결하는 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수산1·2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대동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통합 마을지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향우회, 부녀회, 청년회, 초등학교 동문회 및 마을 임원진과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끝자락에

발간사



수산2리 마을회장
오 동 현

수산1·2리 마을회와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힘을 합쳐 선조들의 삶과 발자취가 담겨 있는 <수산리지>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원고를 집필 교정해 주신 도서편찬위원님들과 소장 자료를 제공하고 면담에 응해 주신 마을 어르신, 역대 이장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수산리의 설촌 유래, 마을 약사, 수산평, 수산진성, 고유지명, 제주 4·3사건, 6·25전쟁, 수산초등학교, 역대 이장, 마을 자생 단체 등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히 수록하여 후대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정확히 알리고자 했으며, 1994년에 발간된 리지와 고문서, 고지도를 참조하여 완벽한 마을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애독자가 되시면 마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애향심(愛鄕心)과 자긍심(自矜心)이 고취되어, 오랫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관련된 사료(史料)가 조선왕조실록 보다도 승정원일기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후대들이 승정원일기 등에 수록된 자료들을 열람하고 취합하여 이 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오직 마을의 역사를 정확히 수록하여 후대에 알리려는 일념으로 마을지 편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마을지 발간을 계기로 주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상부상조하면서 갈등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 12

편찬사



도서편찬위원장
이학박사 **한 석 중**

천년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들의 책임

천년 역사를 지닌 우리 마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이기에 한없는 긍지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설촌 이래 우리마을은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인 1276년에 수산평 벵디에 제주 최초의 탐라목장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 586년 전인 1434년에는 지금의 수산진성을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쌓았습니다. 1946년, 70여 년 전에는 배움의 요람인 초등학교의 탄생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우리마을을 지탱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아픔도 있었습니다. 4·3사건으로 선량한 주민들의 희생과 함께 소개령이 내려지는 등 마을이 황폐화되기도 하였으며, 6·25전쟁으로 꽃다운 청춘이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세월 속에 남겨진 여러 가지 흔적과 기록 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석화와 함께 빛바랜 비석의 명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옛 어르신들의 고초와 애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곤경에 처할 때는 헌신적인 자기희생을 앞세웠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화합하는 모습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 진리도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장하고 계셨던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증언과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한 보상은 영원히 뜻깊은 기록물로 남을 것이기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수산리지는 많은 사료와 고문서, 고지도, 민속자료, 학교 소장 자료 등을 통해 좋은 기록물로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용상 오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 세대에서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3년 여 간 도서편찬에 참여했던 모든 위원님과 수산1·2리 이장님, 총동문회 및 학교 관계자,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원로분들을 비롯해 마을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2.

축 사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오 원 일**

수산리지가 발간(1994년)된 지도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고, 제주 4·3사건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리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점에 수산리지 개정 증보판이 탄생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며, 아울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탐라지, 제주삼현도 해동지도, 남사록, 탐라순력도, 제주도 고지도 등에 기록된 마을이름과 수산평, 수산진성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고, 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초등학교 관련 자료, 비석군, 고유 지명들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록하여 고마움을 오래 기억하고 전승하려는 따스함이 엿보입니다.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에 보관되었던 고문서들이 발견되어, 어느 곳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수산진성에 대한 기록과 혼례 등의 절차들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서들을 오랫동안 잘 보존해 주신 역대 이장님들과 마을 관계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머지않은 장래에 이 문서들을 해석하여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는 책자로 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산리민 여러분!, 그리고 수산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이 책의 주된 독자는 수산리민과 수산초등학교 동문이며, 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틈틈이 이 책을 읽어 수산평과 수산진성에 대해 많이 말하고, 제주 4·3사건과 6·25의 아픔을 공유하며,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계승하여 수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발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신 서귀포시, 수산 1·2리 마을회,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회에 감사드리고,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자료 수집 정리, 관련자 면담, 원고 작성 및 교정에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이신 한석중 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필, 교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발간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아 주신 오영진 3대 총동문회장님과 총동문회 3기, 4기 임원분들에게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1. 12.

휘 호



205×70cm

만 물 생 육 불 가 무 수 불 가 무 산 재
萬物生育 不可無水 不可無山哉

만물이 생육함에는 물이 없어도 안 되고, 산이 없어도 아니 된다.

두 인 수 선 리 만 물 이 부 쟁
頭 印 : 水善利萬物而不爭

물은 만물에게 선덕을 베풀고 이롭게 해주지만, 자신을 위해 다투지 않는다.

유 인 화
遊 印 : 和

대 동 화 합
大同과 和合을 상징한다.

水軒 **吳 長 淳**

1963년 수산리 출생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 상임부지회장
수헌서예문화원장



축하그림



나무는 산이 되고(2019). 112× 182cm. 캔버스에 아크릴

『나무는 산이 되고』 각각의 한 그루의 나무들이 시간의 축적과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다른 나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산을 이루어가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각자의 일상들로 현재의 고유한 모습을 지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사회를 이룬다. 나무들이 산을 이루듯이 우리들도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희망한다.



김 소 연 KIM SO YEO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한국미술협회 고양미술협회, 아트그룹 자유로, 블럭스회원
개인전 11회, 부스전 10회, 단체전 80여 회
소장처: 광주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 김소연 작가는 수산1리 고성일의 배우자이다.



축 하 시

배움의 터전

강 희 규

병술 년 섣달 초하루 날
웃드르 조상님들 숨결의 수산진성
진안당 할망이 품어 주시는 성안에
비밀스런 사랑 몽우리 곱게 맺었네

사철 푸르른 불로장수
긴 세월 속 성안에 솔향기 가득
소낭 가쟁이 기억 니은 글자 배워서
그 열정 삶의 거름이요 터전이 되었다

코 흘리개 고사리 손
가슴에 노란 손수건 매어 달고
어멍 아방 손잡고 학교 가던 날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뒤를 따른 일학년

노란 유채꽃 향기 찾아들면
멜치반찬 도시락 존둥이 졸라묶엉
짝궁 손 심엉 줄지어 왕미오름 소풍날
산담 돌트멍 쇠똥아래 보물찾기 하루가 갔네

하늬바람 불어오면 흙먼지
성안 운동장 가득해도 만국기 펄럭이고
도르라 도르라 어멍 아방 목청 터지게
손심엉 도를락 엎어져도 즐거운 날이었고

공차기 고무줄놀이 뛰놀던 운동장
선생님 따라서 읽고 외웠던 구구단
사계절이 여섯 번 흘러간 세월
육 년의 빛나는 졸업장 눈물의 추억이 서렸다

지난 날 인고의 세월
검은머리 파뿌리 장년이 되었고
웃드르 ᄆᆞ슬 삶의 기둥 문화의 중심
어린 시절 추억이 녹아든 수산초등학교

동문들이여!
칠십여 년 수산진성 배움의 터전 영원하리라



강 희 규

시인
수산초등학교 22회 졸업
해양경찰청 경감

사진으로 보는 우리마을

수산1리 마을 전경



▲ 수산1리 마을 명칭 표지석



▲ 수산1리 마을 상징 휘장



▲ 학교를 중심으로 바라본 마을 전경

수산2리 마을 전경



▲ 수산2리 마을 명칭 표지석



▲ 수산2리 마을 상징 휘장



▲ 수산2리 마을 전경

주요기관 및 시설



▲ 수산1리 마을회관



▲ 수산2리 마을회관



▲ 노인회관



▲ 수산초등학교



▲ 병설유치원



▲ 미타요양원





▲ 수산보건진료소(오른쪽 사진은 지금의 대왕주택 주차장에 있었던 처음의 보건진료소)



▲ 보석사



▲ 남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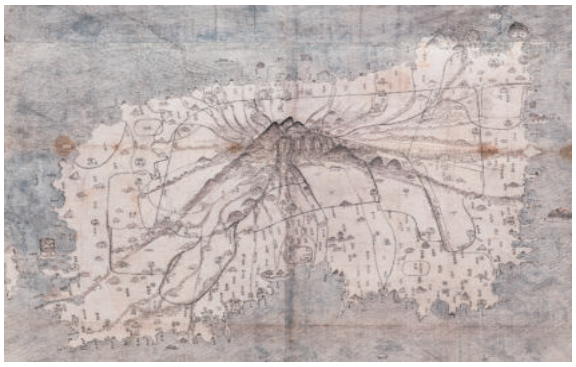
제주 古地圖에 나타난 우리마을



▲ 수산성조 首山城操(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지나조선고지도 支那朝鮮古地圖)



▲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



▲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동여도 東輿圖)



▲ 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 탐라전도 耽羅全圖(고지도첩 古地圖帖)

수산체육공원













▲ 수산체육공원 전경, 표지석 및 개장기념식(2001. 10. 28.)

수산1리 옛 동네 이름













❶ 동문동네 ❷ 섯동네 ❸ 서문동네 ❹ 천외동(내팟동네) ❺ 큰동네 ❻ 교동

1958년에 <班, 반>을 <坊, 방>으로 개편하면서 자연마을단위로 동문동네를 청룡방(靑龍坊), 섯동네를 백호방(白虎坊), 서문동네를 중앙방(中央坊), 천외동을 주작방(朱雀坊), 큰동네를 현무방(玄武坊) 등 5개 방(坊)을 두었다. 이외에도 학교동네 근처를 교동(校洞)이라고 따로 불렀다.

우리마을의 비석군



▲ 수산1리 마을 비석군



▲ 수산2리 마을 비석군















❶ 忠魂碑(충혼비)

❷ 使相尹公久東恤民善政碑
(사상윤공구동휼민선정비)

❸ 別遣御使黃公龜河至誠賑民碑
(별견어사황공귀하지성진민비)

❹ 義捐紀念碑(의연기념비)

❺ 在日水山校後援會義捐紀念碑
(재일수산교후원회의연기념비)

❻ 復舊紀念碑(복구기념비)

❼ 在日僑胞蔡殷日女史之碑
(재일교포채은일여사지비)













❶ 在日僑胞水山電化事業後援紀念碑
(재일교포수산전화사업후원기념비)

❷ 忠南中隊第一小隊長警衛崔隆陽淸德碑
(충남중대제1소대장경위최융양청덕비)

❸ 새마을會館建築功德碑
(새마을회관건립공덕비)

❹ 金元斗之功德碑(김원두지공덕비)

❺ 在日僑胞새마을會館建築功德碑
(재일교포새마을회관건축공덕비)

❻ 在日僑胞鄕校訓長康壹鉉功德碑
(재일교포향교훈장강일현공덕비)









❶ 孝烈高氏之閭(효열고씨지려)
❷ 孝子留鄕別監玄胤慶之閭(효자유향별감현윤경지려)
❸ 忠孝洪達漢之閭 (충효홍달한지려)
❹ 南陽人洪氏記念碑(남양인홍씨기념비)











❶ 康公承保紀念碑(강공승보기념비)
❷ 복지회관건립기념비
❸ 국민교육헌장탑기증 기념비
❹ 임대주택 건립기념비
❺ 수산체육공원 건립기념비

거욱대, 부부석



▲ 거욱대



▲ 부부석



▲ 새가름 옛터 비(碑)



▲ 돌아온 3인 비(碑)



우리마을의 표지석














水山二里


水山二里


水山二里


水山二里


범죄 없는 마을


水山二里


수산2리공원

우리마을의 자연경관

봄 春



▲ 하늘에서 바라본 자연 생태공원



▲ 수산2리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중인 유채꽃 사진 촬영 장소

여름 夏



▲ 자연 생태공원 부근의 여름 풍경



▲ 학교의 여름 풍경



▲ 서문동네 여름 풍경

가을
秋



▲ 노지감귤이 노랗게 익은 모습



▲ 수산한못의 가을 정취

겨울
冬











▲ 겨울철 마을에 눈 내린 모습(사진제공 한석중, 김문식)

마을 주변의 오름



▲ 멀리서 바라본 대왕산



▲ 하늘에서 바라본 대왕산



▲ 멀리서 바라본 뒤굽은이



▲ 하늘에서 바라본 뒤굽은이



▲ 멀리서 바라본 궁대오름



▲ 하늘에서 바라본 궁대오름



▲ 주위에서 바라본 남거봉



▲ 하늘에서 본 남거봉



▲ 돌리미오름

마을 주변의 동굴



▲ 수산동굴 내부모습



▲ 수산동굴 입구







▲ 칠낭궤



▲ 구레기굴



▲ 벌라릿굴 북쪽 입구(사진제공 한석중)



▲ 벌라릿굴 남쪽 입구(사진제공 한석중)



▲ 알벌라릿굴 내부(사진제공 강희규)



▲ 알벌라릿굴 입구(사진제공 강희규)



▲ 누루못굴(서쪽입구)



▲ 누루못굴(동쪽입구)



▲ 공쟁이굴



▲ 사싯굴(ᄉᆞ싯굴) 입구



마을 주변의 연못







▲ 하늘에서 바라본 수산한못의 여름과 겨울의 눈 덮인 모습(사진제공 강승욱, 김문식)



▲ 진빌레(1990년대 모습)



▲ 누루못(1970년대)



▲ 南陽人洪氏記念碑가 있었던 이전물(1980년대)



▲ 통한못(한못서못)



▲ 폭남못(폭낭못)



▲ 개나물



▲ 돌리미못



▲ 보좌물



▲ 퀸남못(퀸낭못)



▲ 거머리물



▲ 캐여물(캐물)



▲ 푸수물



▲ 한질긋못



▲ 동산물



▲ 새 우물



▲ 전못(존못)



▲ 츠남못

우리 마을의 유적

■ 수산진성(水山鎭城)











▲ 수산진성의 성벽, 북서쪽 치성(雉城) 및 회곽도(사진제공 한석중)

■ 당과 포제단



▲ 본향당(울렛모르 하로산당)



▲ 진안할망당



▲ 검은머들당



▲ 신술일뤠당



▲ 수산1리 마을 포제단



▲ 수산2리 마을 포제단

신목(神木), 당산(堂山)나무



▲ 신목(神木)인 잣밤나무

보호수









❶ 후박나무(1982. 10. 22. 지정)
❷ 팽나무(1982. 10. 22. 지정)
❸ 후박나무(과거 모습)
❹ 팽나무(과거 모습)

거목(巨木), 풍치목(風致木)



▲ 학교 정문 팽나무



▲ 학교 운동장 북쪽 잔디밭 팽나무



▲ 샘물(진안물)이 있었던 곳의 팽나무













❶ 수산1리 노인회관 남쪽 팽나무
❷ 알동네 인근 팽나무
❸ 과거 누루못터 동쪽 팽나무
❹ 솔대왓 인근 팽나무
❺ 수산2리 마을 팽나무



▲ 알동네 입구 팽나무



▲ 진빌레 팽나무



▲ 웃동네 팽나무



▲ 장판거리 팽나무

우리 마을의 주요 행사

■ 노인복지회관 준공 및 제막식









▲ 노인복지회관 준공 및 在日僑胞鄕校訓長康壹鉉功德碑(재일교포향교훈장강일현공덕비) 제막식 광경. 조명룡 이장, 고진후 노인회장께서 축사하는 모습이며, 마을주민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1989. 4. 29.)



■ 정보화마을 개관식 및 운영



▲ 수산1리 복지회관 준공식 및 마을정보센터 개관식, 건강관리실 개소식(2007년)



▲ 마을정보센터 개관식(2007년)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2012년)



▲ 제15회 전국 정보화 마을대회(2017년)



▲ 프로그램관리자 워크숍(2019년)

■ 제43회 탐라문화제, 서민전통혼례식 경연











▲ 제43회 탐라문화제 민속예술축제 일반부 경연에서 우리마을에서 출전한 〈서민전통혼례식〉 공연이 우수상을 받았다. 당시 고원호 이장을 중심으로 청년회, 부녀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성산읍 고성리 출신 한공익 선생이 총괄 연출을 맡아 지도하였다. (2004. 10. 7.)

신랑역: 김경범, 신부역: 강희숙
구종(驅從): 김승규

■ 학교살리기 운동



▲ 수산초등학교 살리기 임대주택 준공식(2014. 11. 12. 이장 오찬율, 학교살리기 추진위원장 김석범)





▲ 오찬율 이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2014. 11. 12.)

■ 자매결연 및 대외활동



▲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2006년)



▲ 서대문구 아파트부녀회 자매결연 협약식(2007년)



▲ 금산 인삼약초 정보화마을과 교류(2017년)



▲ 부산 금정산정 정보화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식(2017년)



◀ 제주농협본부와 자매결연 협약식 및 강덕재 본부장 명예이장 위촉식(2016. 7.)

■ 부녀회 활동











▲ 수산1리 부녀 회원들이 꽃길 가꾸기 및 효사랑 행사



▲ 수산2리 부녀 회원들이 꽃길 가꾸기 및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 노인회 활동









▲ 각종 경기 및 대회에서 수상 장면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

■ 우리들 이방인 예술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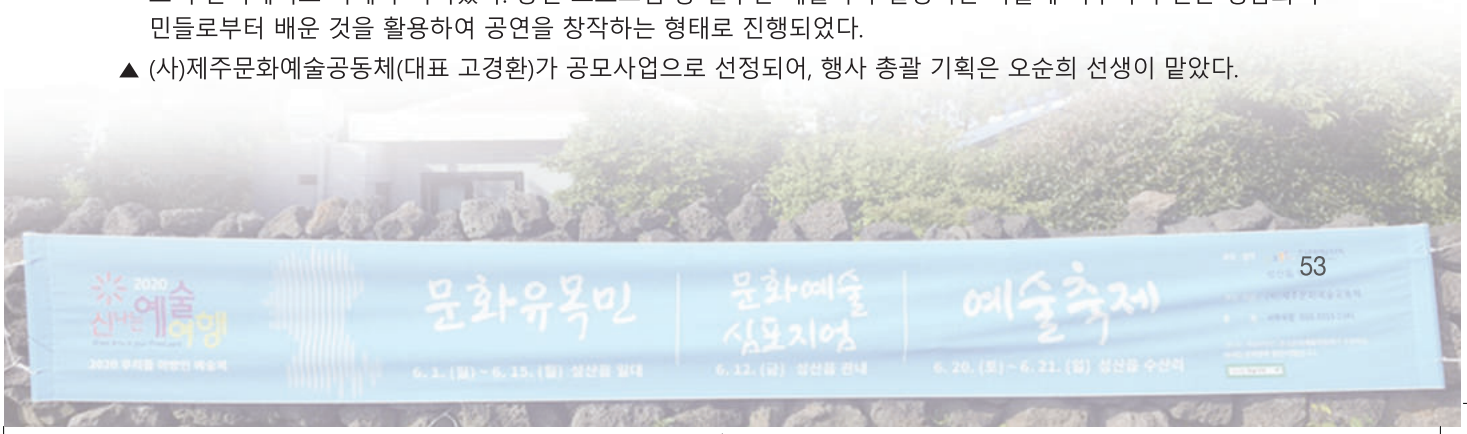






▲ 2020년 우리들 이방인 예술축제가 6. 1일부터 20일까지 성산읍 일대에서 펼쳐졌다. 김문식 이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산리에서도 축제가 이어졌다. 공연 프로그램 중 일부는 예술가가 일정기간 마을에 거주하며 얻은 영감과 주민들로부터 배운 것을 활용하여 공연을 창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대표 고경환)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사 총괄 기획은 오순희 선생이 맡았다.



■ 제2공항 반대 운동











▲ 2015년 제2공항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을공동체 파괴, 난개발, 소음피해, 자연환경 파괴 등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총회결의에 따라 약 5년간 공항 반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제2공항비상대책위원장 초대 오찬율, 2대 김석범, 3대 오만탁, 4대 김문식 이장)

■ 공공시설 신축



◀ 수산1리 마을회에서 임대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산물판매장(1층 왼쪽)
◀ 임대주택(2층 왼쪽)
◀ 식당(오른쪽)



◀ 수산2리 마을회에서 임대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나들가게(1층 왼쪽)
◀ 식당(1층 오른쪽)
◀ 사무실(2층)
◀ 임대주택(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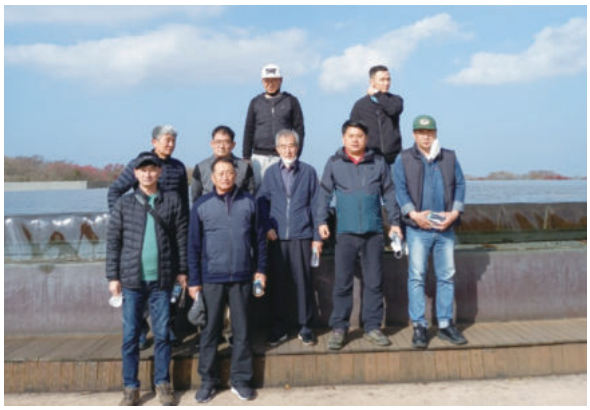
◀ 수산1리 마을회에서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건축된 임대주택(1차 2014. 2., 2차 2014. 10. 준공)

■ 향우회 활동





▲ 재제주시 수산1리 향우회 활동 모습(효사랑 경로잔치 및 정기총회)





▲ 재제주시 수산2리 향우회 활동 모습





▲ 재제주시 수산2리 향우회 활동 모습

옛 사진



▲ 水山里出身戰歿將兵 忠魂碑 제막식
(수산리출신전몰장병 충혼비)

1956. 12. 9. 수산리출신전몰장병 충혼비 제막식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한 사진이다. 마을 원로를 비롯하여, 부녀자, 청소년,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비석의 상단에 있는 가첨석(加檐石)이 지금과 다르다. 비를 세운 후 음식을 차리고 의식을 행한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수산1리 마을 입구인 수산리 248 일대이다. (사진제공 김석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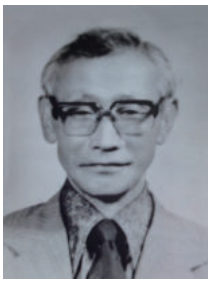


▲ 충혼비



▲ 水山校 落成記念 (수산교 낙성기념)

1957. 10. 19. 현대식 학교건물을 증축한 후 낙성식을 거행하는 모습(교장 2, 4대 김홍대, 학교 소장자료)



▲ 김홍대 교장선생



▲ 義捐記念碑(의연기념비) 제막식

1957년 현대식 학교건물을 증축할 당시 의연금을 낸 공덕을 기념하기 위한 의연기념비 제막식 장면이다. 학교 낙성식 후 6년 뒤인 1963. 9. 22일에 의연기념비 제막식을 하였다. (교장 6대 오석천, 학교 소장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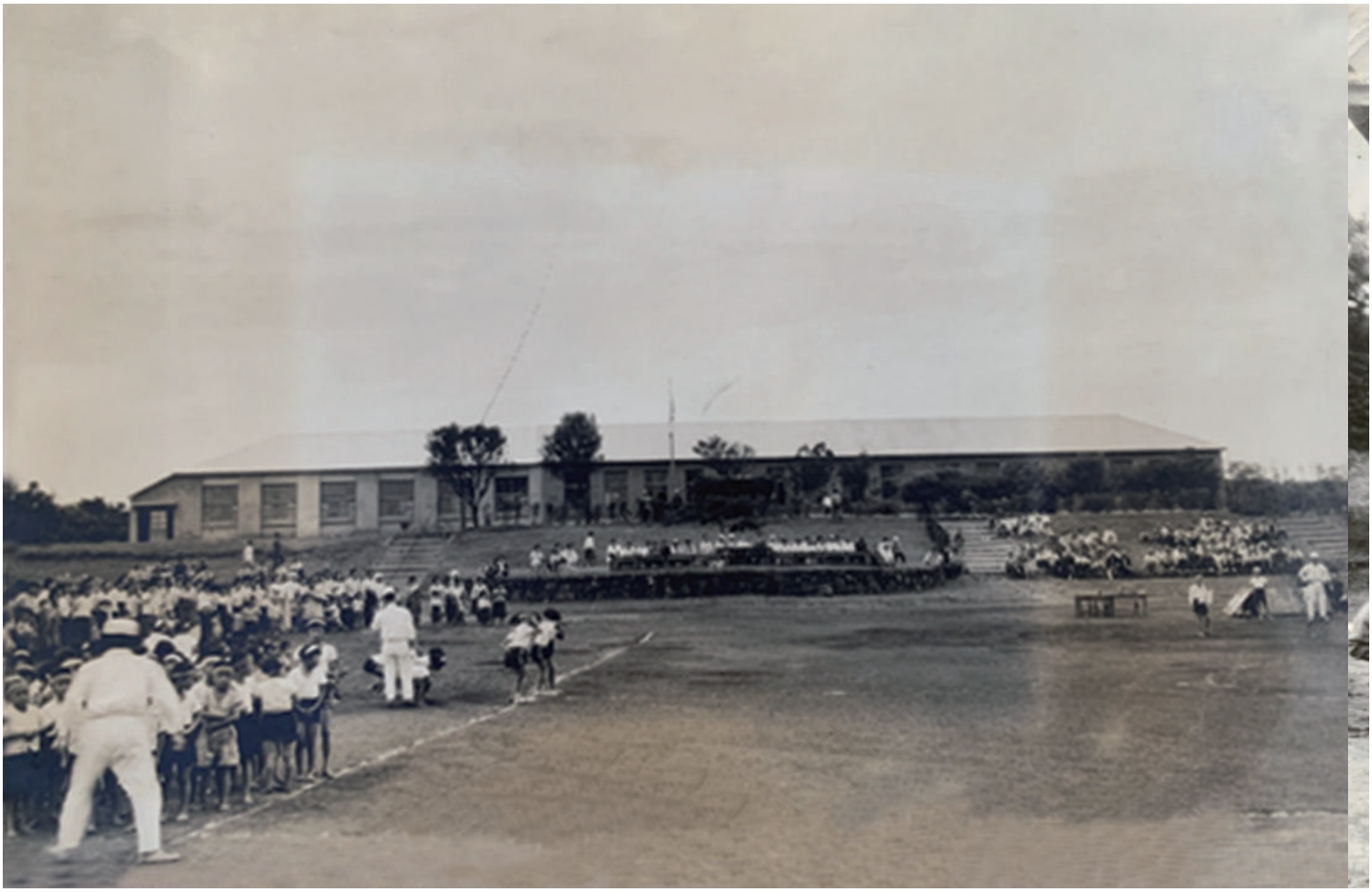
▲ 오석천 교장선생



▲ 의연기념비



▲ 재일수산교후원회 의연기념비



▲ 義捐記念碑(의연기념비) 제막식기념 운동회

1957년 현대식 학교건물을 증축할 당시 당시 의연금을 낸 공덕을 기념하기 위해 의연기념비 제막식기념 운동회 모습. 학교 낙성식 후 6년 뒤인 1963년에 의연기념비 제막식기념 운동회(교장 6대 오석천)를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의연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진 세 분의 생전 모습이다.(학교 소장자료)



▲ 성암 강승보 사장



▲ 학교훈장 고창윤



▲ 정암 고진후



▲ 託兒所(탁아소) 운영

탁아소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생겨난 취학 전 유아를 맡아주는 기관으로 우리마을에는 1960년대에 탄생하여 대략 6년간 운영되었다. 1968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당시 탁아소 운영관리를 한영옥(9대 부녀회장) 선생이 했으며, 농촌진흥원에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고 유아들을 돌봤다. 뒤로 보이는 건물은 지금의 노인회관 자리에 있었던 탁아원 교실 및 수산 4-H구락부 회관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왼쪽부터 오금자, 강봉구, 한영옥 선생, 강희면이다. (사진제공 한영옥)



▲ 한영옥 탁아소 선생



▲ 수산리 전기점화식(1970년)

1969년에 우리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다. 1970년도에 점화식 기념행사를 하는 광경으로 장소는 수산초등학교 교실이다. 윗부분에 교훈이 걸린 액자와 전깃불이 켜져 있는 전구가 보인다. (제주시 소장자료)



▲ 재일교포 환영 기념회

의연기념비 제막식 약 3개월 전 재일교포 환영 기념사진으로 당시의 마을 원로와 청년들이 보인다.
(맨 앞줄 좌측 두 번째가 강일현, 네 번째 고창윤, 다섯 번째가 기성회장 김정옥, 이외에 김태삼, 고몽렬, 강승률, 고창권, 강봉욱. 고인선, 고정봉, 김두표, 강경협, 강순택, 오기준, 오성표 등이 함께하고 있다)



▲ 在日僑胞鄕校訓長康壹鉉功德碑 제막식 (재일교포향교훈장강일현공덕비)

1989. 4. 29. 공덕비 제막식 광경이다. (이장 조명룡, 노인회장 고진후와 당시 고인선 성산면장이 함께 하고 있다)



▲ 재일교포
향교훈장 강일현



▲ 1976년 제6회 도일주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고대오 선수의 우승 골인 장면이다. (사진제공 고대오)



▲ 강희탁, 김순자 결혼 기념사진(1960년대)



▲ 오남종부친 환갑잔치 기념사진(사진제공 오남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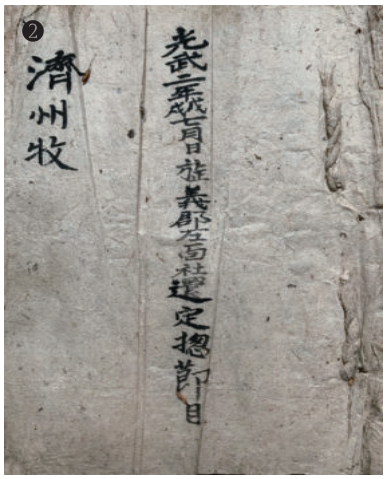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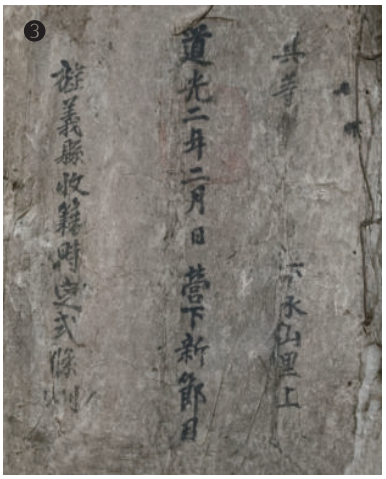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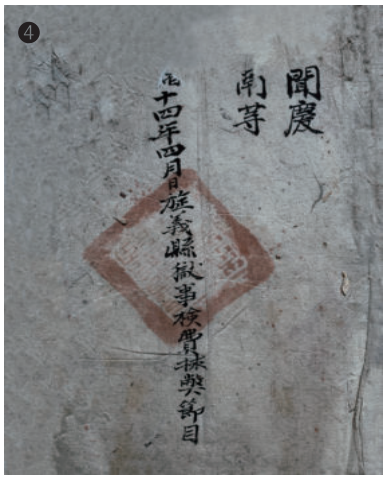
❶ 강봉산 오화생 부부 결혼기념(1959년)
❷ 고인탁, 정행춘 부부 결혼기념(1959년)
❸ 오병순 고순일 부부 결혼기념(1962년)
❹ 평상복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고광수 조부 고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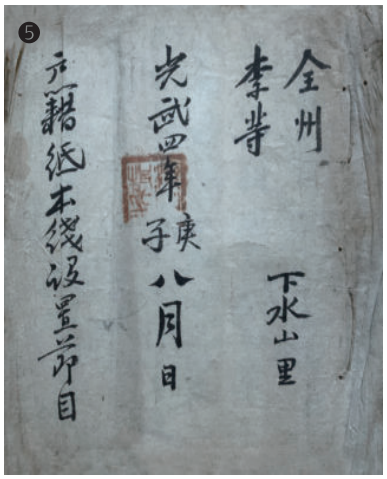
고문서,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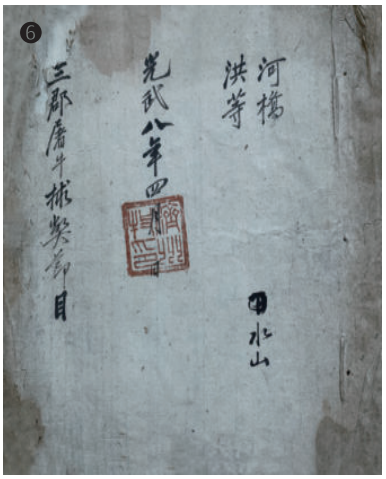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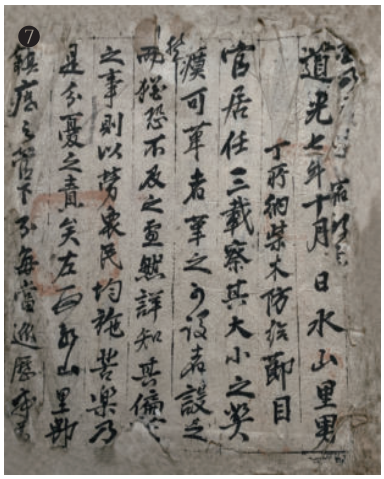












❶ 道光貳拾玖年己酉二月日水山鎭月令舍改打量節目
(도광이십구년기유이월일수산진월령사개타량절목)

❷ 光武二年戊戌七月日旌義郡左面社還定摠節目
(광무이년무술칠월일정의군좌면사환정총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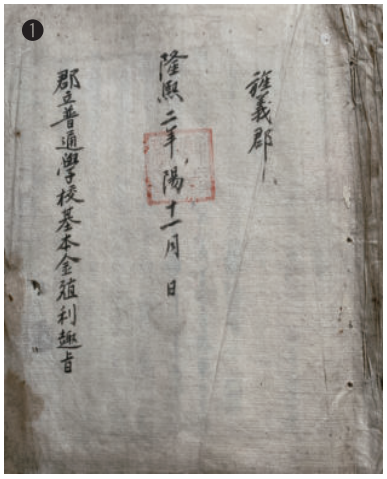
❸ 旌義縣牧籍時定式條例(정의현수적시정식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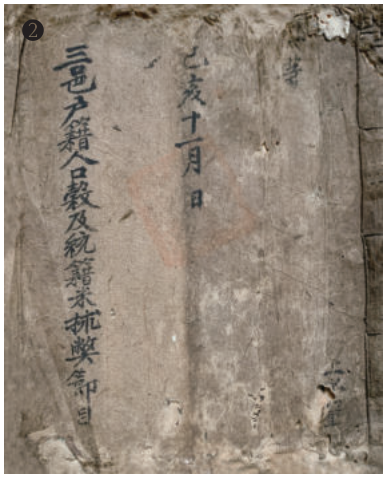
❹ 光緒14年四月日旌義縣獄事檢費捉弊節目
(광서십사년사월일정의현옥사검비구폐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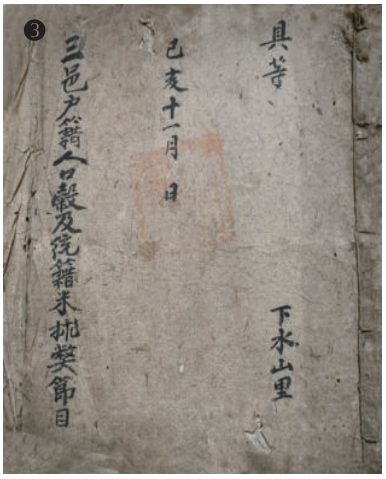
❺ 戶籍紙本錢設置節目(호적지본전설치절목)

❻ 三郡屠牛捉弊節目(삼군도우구폐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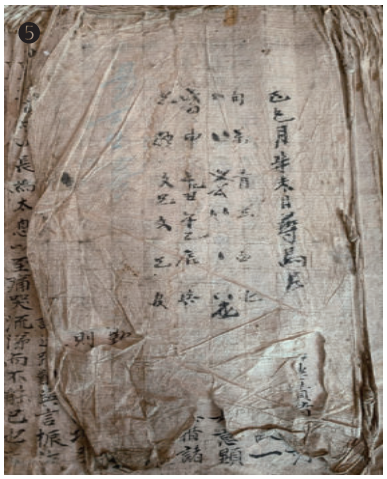
❼ 道光七年十月 日 水山里男丁所納禁木防給節目
(도광칠년시월일수산리남정소납금목방급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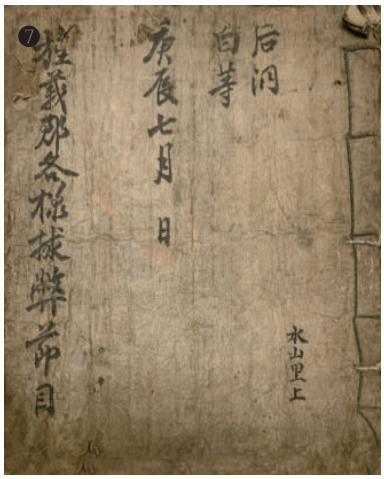












❶ 旌義郡郡立普通學校基本金殖利趣旨
(정의군군립보통학교기본금식리취지)

❷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捉弊節目(上水山里)
(삼읍호적인구곡급통적미구폐절목, 상수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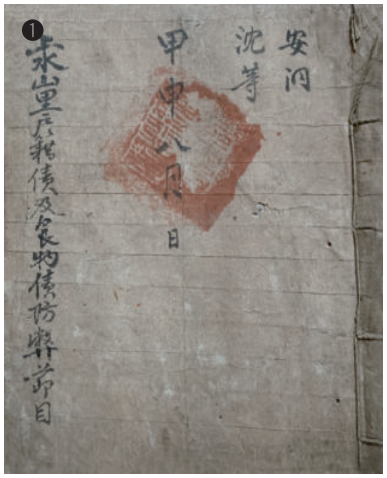
❸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捉弊節目(下水山里)
(삼읍호적인구곡급통적미구폐절목, 하수산리)

❹ 警民編(경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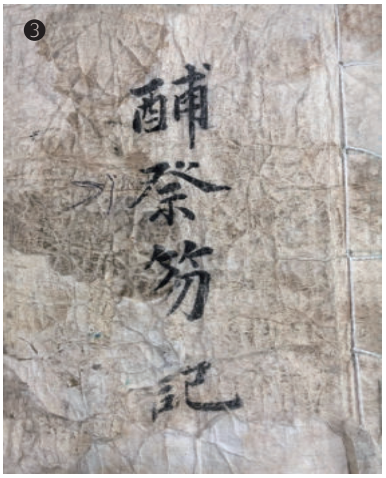
❺ 易言(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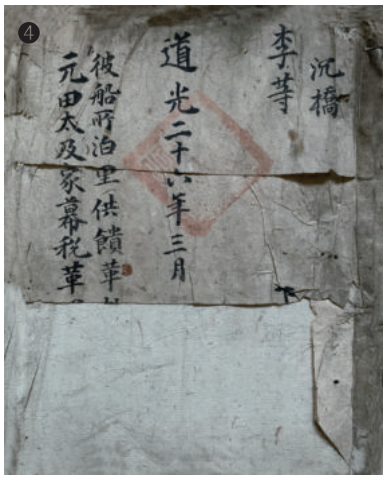
❻ 婚禮笏記(혼례홀기)

❼ 旌義郡各樣捉弊節目(정의군각양구폐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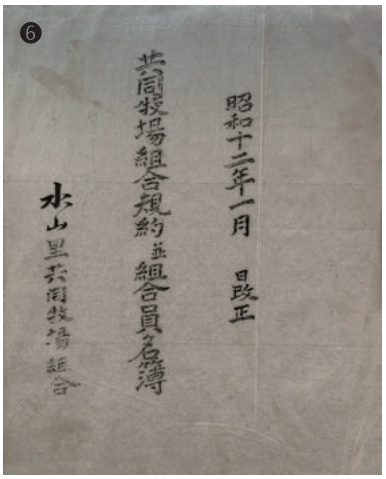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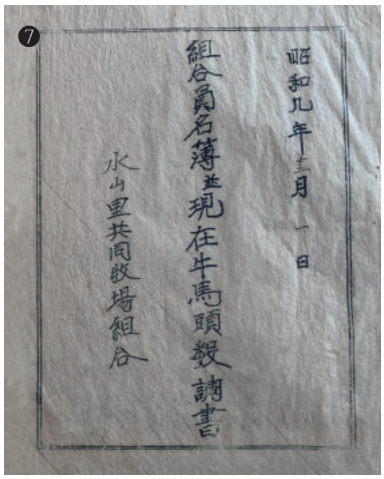












❶ 上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
(상수산리호적채급식물채방폐절목)

❷ 下水山里戶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
(하수산리호적채급식물채방폐절목)

❸ 酺祭笏記(포제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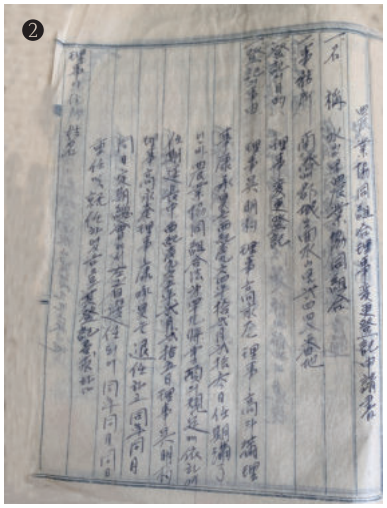
❹ 被船所泊里供饋革弊元田太及家幕稅革罷節目
(피선소박리공궤혁폐원전태급가막세혁파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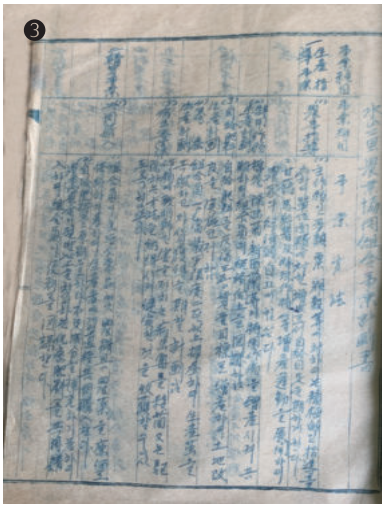
❺ 耕地面積臺帳(경지면적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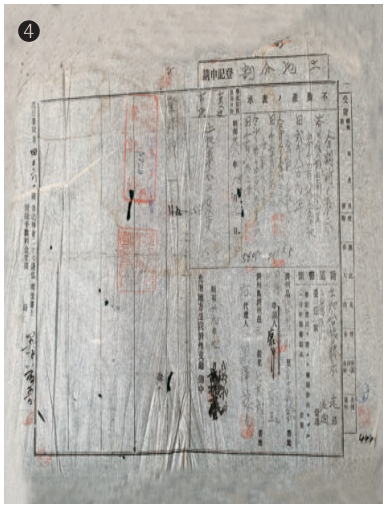
❻ 昭和十二年一月日改正共同牧場組合規約竝組合員名簿
(소화십이년일월일개정공동목장조합규약병조합원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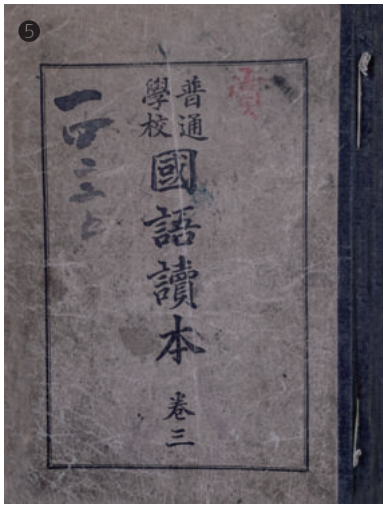
❼ 昭和九年十二月一日組合員名簿竝現在牛馬頭數調査書
(소화구년십이월일일조합원명부병현재우마두수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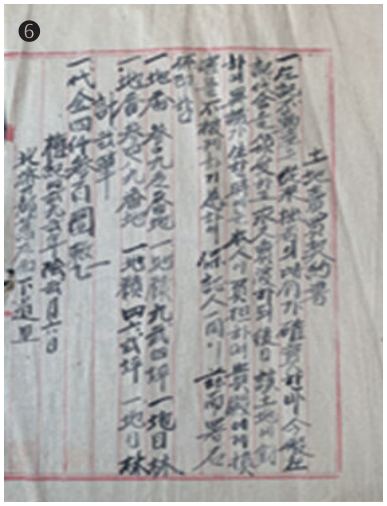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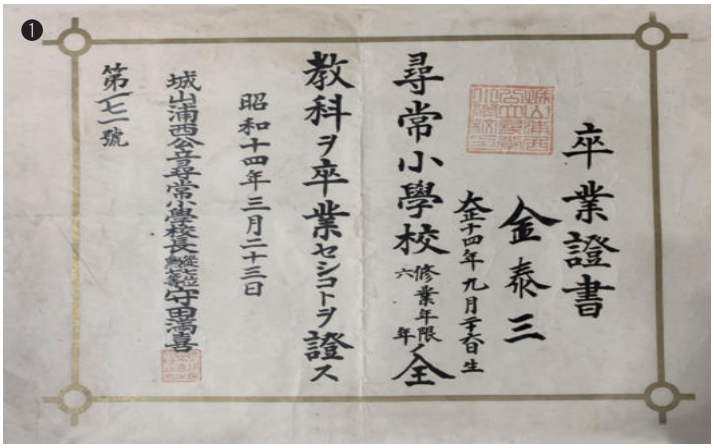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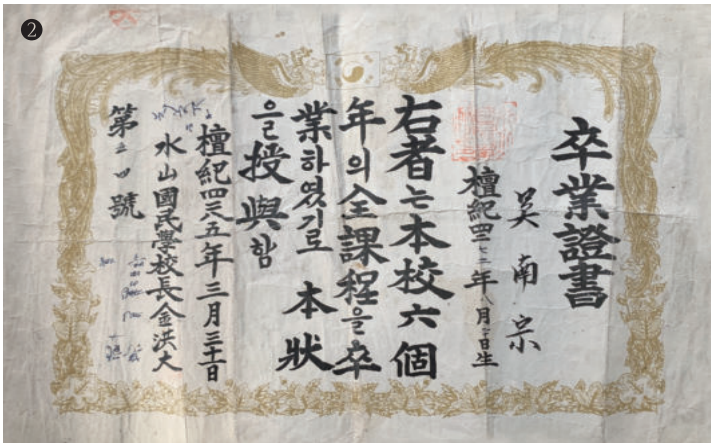


❶ 수산2리 농업협동조합 설립등록신청서(수산2리 마을회 소장자료, 1958)
❷ 수산2리 농업협동조합 이사회 등기 신청서 기록물(조합장 강승호, 수산2리 마을회 소장자료, 1966)
❸ 수산2리 농업협동조합 사업계획서
❹ 토지분할 등기신청서(자료제공 오남종, 1944)
❺ 보통학교 국어독본(자료제공 김윤수)
❻ 토지매매계약서(자료제공 오남종,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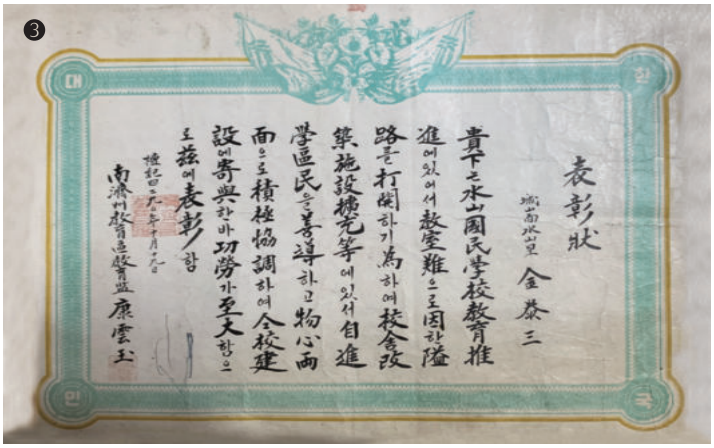
❶



❷



❸



❶ 졸업증서(城山浦西公立尋常小學校 성산포서공립심상소학교)

❷ 졸업증서(오남종, 수산초등학교)

❸ 표창장(김태삼, 남제주교육구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이 상장은 학교 낙성 기념식 행사 때 받은 표창장이다)



6킬로의 大洞窟

城山面 水山里 별 관에, 吳南宗씨 가發見

12M 되는 石柱도

평평한물바닥에 높은데15M나

239명 式

搬入船과

▲ 수산동굴 발견 관련기사(제남신문, 1970. 2. 23.)



南都編

城山面 內部落中 最古村

몽고족위한 慰樂시설도

濟州의鄕史

[109]

▲ 마을 향사(鄕史) 관련기사(제남신문, 1979. 9. 17.)

한라일보 종합

587년 전 수산진성 동문 옹성지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위치한 '수산진성' 내에서 동문 옹성지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을향토지 도서편찬위원장인 한석종 위원장(이학박사)은 3년여 간의 현장 자료 조사 중 수산진성 동문이 있었던 곳에서 반동그라미 꼴 옹성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동문 옹성지의 크기는 지름이 약 24m로 추정되며 기단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크기가 클뿐만 아니라 그랭이공법으로 잘 쌓여져 있었다. 성벽의 높이는 약 3.2m 정도이다.

이곳에는 기단부 및 성벽이 일부 남아있으며, 밑부분 기단과 석축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또 한 위원장이 '치성'에 대한 규모와 크기를 처음으로 실측한 결과 길이 6~8m, 높이는 3.2~3.8m로 나왔다. 현재 치성 4개 중 2개는 완벽한 형태로 잘 보존돼 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수산1리 마을회관에 보존된 225년 전 고문서 '흔례홀기'와 172년 전 '수산진월령사개타량절목' 등 20여권을 찾아냈다.



약 587년전 수산진성이 있던 자리에 수산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다원형 지역은 동문 옹성지로 추정되는 터. 네모 안은 흔례홀기의 일부분. 박세인기자

밑부분 기단·석축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
수산진 타량절목 등 225년전 고문서도 발견

절목 해제를 도운 국사편찬위원회 문창선 연구원은 "흔례홀기는 현재 성균관과 전국 향교 등에서 행해지는 전통혼례의 홀기가 근대 이후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전통혼례의 홀기는 전범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수산진 타량절목의 경우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문서로 수산진 시설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문서이며, 내부시설인 비대청, 군기, 와가, 객사 동문관서문, 공소 등을 주변마을인 종달리, 오조리, 지금의 수산2리인 산양리 등 4개 마을이 수리를 분담해서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1리 김문식 이장은 "옹성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절목 등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번역사업을 추진해 우리마을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산진성은 약 587년 전부터 운영돼온 제주도에서 현존하는 '방호소성'으로 가장 오래된 성으로 알려져 있다. 1434년(세종 16년) 정의현에 2개의 진을 세울 때 좌진은 '수산'에 우진은 서귀포에 세웠는데 이때까지는 성곽이 없음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되며, 당시에는 '수산성'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수산진성은 조선시대의 북방 '야인'과 남방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관방시설 가운데 하나인 방어유적으로 당시에는 방호소 역할을 했던 시설이다. 1439년 한승순 목사의 건의에 의해 축성이 시작됐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의 별방, 명월, 서귀진성보다 70여년 앞선 것이다.

고대로기자 biaroad@ihalla.com

▲ 수산진성 동문 옹성지(甕城址) 및 마을회 소장 고문서 관련기사(한라일보, 2021. 12. 22.)

일러두기

1. 이 책은 水山里誌(1994) 개정증보판이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일부는 자료출처를 밝히지 않고, 역사적 사실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석을 달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2.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을 원로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문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우리마을 역사 찾기 안내, 도서편찬 설명회와 도서열람 등을 실시하였다.

3. 내용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문헌과 고문서, 고지도 등을 수집하여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표기 방법으로는 국한문 혼용과 주석(註釋)을 통해 참고자료 또는 용어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4. 인물 관련 내용 중 사진과 수록된 자료는 가능한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당사자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5. 의·식·주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 사진자료는 실제로 우리마을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외에도 원로분들의 고증과 재연을 통해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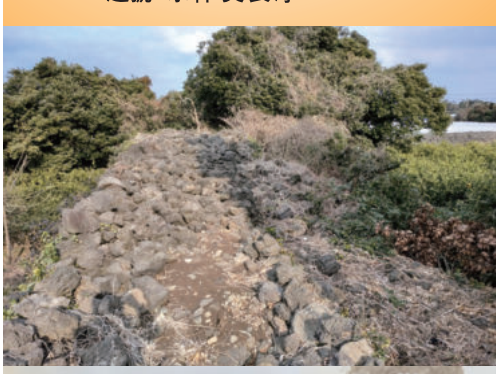
6.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고문서 등은 수산1 · 2리 마을회에 소장된 문서로서, 해제(解題) 및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였다.

7. 본 도서편찬사업은 수산1 · 2리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도서편찬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하였으며, 도서 발간은 수산1 · 2리 마을회, 총동문회의 행 · 재정적 지원과 행정기관의 사업비 지원으로 수행하였다.

改訂增補版

水山里誌

제호 수헌 오장순
■ 題號: 水軒 吳長淳









목 차



■ 발간사 ····· 03
■ 편찬사 ····· 05
■ 축 사 ····· 06

사진으로 보는 우리마을 / 10

제1편 마을 이야기

제1장 마을 개관 ····· 79
제1절 자연환경 / 79
제2절 인문환경 / 83
제3절 마을 주민의 생활사 / 88
제4절 행정약사 / 94
제5절 기관 단체 및 공공 시설 / 102
제6절 정보화 마을 / 129
제7절 이민 단합 체육대회 / 132

제2장 마을 역사 ····· 136
제1절 설촌 유래와 마을의 변천사 / 136
제2절 마을 이름의 유래 / 149
제3절 고지도에 나타난 마을 이름 / 159
제4절 옛날의 수산경 / 163
제5절 마을의 사건 및 주민운동 / 165

제3장 마을과 자연 ····· 184
제1절 오름과 천연동굴 / 184
제2절 연못, 습지 / 203
제3절 고유지명 유래 / 222

제2편 민속 문화유산

제1장 문화유적 ····· 257
제1절 수산진성 / 257
제2절 비석군과 표지석 / 288
제3절 벌라리왓 유물 산포지 / 324
제4절 과원 / 326
제5절 거욱대, 부부석 / 331
제6절 수산평 / 333
제7절 보호수, 신목 / 338
제8절 마을 소장 고문서 /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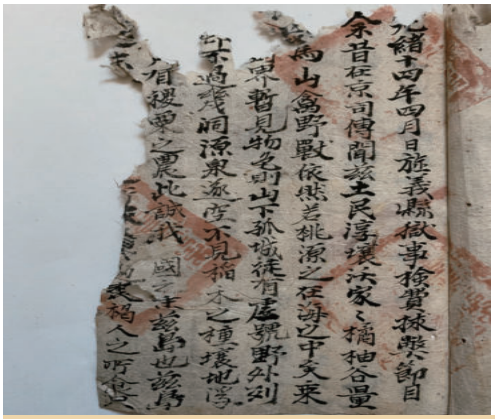
제2장 민속 문화유산 ····· 373
제1절 구비전승 / 373
제2절 우리마을의 언어 / 380
제3절 민요 / 381
제4절 민간신앙 / 394

제3편 삶과 농업

제1장 옛날의 주민 생활 ····· 427
제1절 물, 불과 통신 / 427
제2절 의(衣)생활 / 438
제3절 식(食)생활 / 445
제4절 주(住)생활 / 453

제2장 마을의 풍속과 풍습 ····· 460
제1절 세시풍속 / 460
제2절 생활 속의 풍습 / 465
제3절 통과의례 / 491
제4절 사냥과 낚시 / 501
제5절 추억 놀이 / 508

제3장 농·축·관광산업의 발전 ····· 516
제1절 농업 환경 및 기상 특성 / 516
제2절 농업의 역사 / 519
제3절 우리마을 주요 재배 작물 / 521
제4절 농업 문화 및 도구 / 530
제5절 농업협동조합 운영 / 536
제6절 목마장의 역사와 수산리 공동목장조합 탄생 / 542
제7절 목축 문화 / 548
제8절 생활 및 농업용 도구 / 560
제9절 관광산업 / 578

















제4편 학교와 교육

사진으로 보는 학교의 어제와 오늘 ····· 581

제1장 우리마을 교육의 변천사 ····· 592
- 제1절 옛 교육 / 592
- 제2절 일제강점기의 보통교육 / 596
- 제3절 수산공립학교의 설립 / 598
- 제4절 교가의 탄생 / 602

제2장 수산초등학교 운영 및 현황 ····· 603
- 제1절 일반 현황 / 603
- 제2절 병설유치원 / 609
- 제3절 역대 교장 / 610
- 제4절 학부모 단체의 교육활동 지원 / 612
- 제5절 학교살리기 운동 / 614
- 제6절 특색활동 및 자랑 / 616
- 제7절 기록물 / 618

제3장 총동문회 운영 ····· 619
- 제1절 역대 회장 / 619

제4장 졸업생 현황 및 사진 ····· 622
- 제1절 졸업생 현황 / 622
- 제2절 졸업사진 / 624

제5편 인물사

제1장 수산1리 인물사 ····· 662

제2장 수산2리 인물사 ····· 677

제6편 제주고지도에 기록된 우리마을 관련 이름 / 684

부록

- 酺祭壇 / 714
- 酺祭 祝文과 해설자료 / 715
- 酺祭 笏記 및 해설자료 / 718
- 酺祭 陳設圖 / 724
- 酺祭 祭物 목록 / 725

■ 도서편찬 추진위원 명단 및 감수위원 ····· 727